

통일 칼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은 “조종선 선 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계기”라고 선전했다. 평양에서 베이징을 오간 김 위원장의 특별 열차부터, 북·중·러 정상에 나눈 이야기들까지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중국은 1945년 일본의 항복 문서를 받은 날을 ‘전승절’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 전승절 열병식에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서서 반서방 연대를 공식화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열병식에서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공격과 방어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고, 다양한 무인기들도 동원해 무력을 과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정상들과 이동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앞을, 자신의 왼편에 세우며 예우했다. 천안문 망루에서는 시 주석의 오른편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왼편엔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했다.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건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던 냉전 시기 이후 처음으로, 66년 만

이다. 지난 1959년 중국 열병식에서 김일성, 마오쩌둥, 니키타 흐루쇼프의 탄압이 재현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도 누리지 못한 중국의 의전 서열 2위 자리를 과거적으로 꿰차며 다자 외교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고도로 계산된 장면을 연출하며 전 세계에 깊은 각인을 남긴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대항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열병식은 하늘과 땅, 바다 전역에서 미국과 맞설 수 있다는 중국의 자신감을 상징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처음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동평-61이다.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데다 신형 교체연료 시스템

을 활용해 발사 시간까지 줄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명 ‘로켓맨’, 열병식 애호가 김정은 위원장도 이 동평-61이 지나갈 때, 시 주석에게 질문을 던졌다. 미군기지가 있는 곳을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리는 동평-26D 미사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인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동광-17 극초음속 미사일도 선보였다. 미국 항공모함을 멀리서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인자-21, 미국에 버금가는 핵 보복 능력을 자랑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랑-3도 공개됐다. 미국에 대응해 중국이 설정한 제2도련선까지 해양 패권의 범위를 넓히고, 타이완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위를 점

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드론 강국답게 차세대 무인 무기도 대거 등장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다종의 무인기들이 공개됐고, 무인 전투차량과 로봇개도 행진에 동참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고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한반도 주변까지 핵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초대형 핵추진 무인잠수정에 이어 무인수상정도 실체를 드러냈다. 미국이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성 무인전투기 여러 종류를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런 유형을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과시했다. 한편,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선 올해 12월에 불과한 말, 주애의 동행이 큰 관심거리였다. 김 위원장의 과거 세 차례 방중에 부인 리설주가 동행한 적은 있지만, 해외 방문에 딸을 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국제무대에 김정은의 후계자임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과 함께, 단순히 교육 차원에서 동행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911 테러 희생자 추모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9·11 테러 24주기 추모 행사에서 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이 추모하고 있다.

석방 근로자들, ‘한국으로’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허츠폴드-잭슨 국제공항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됐다 석방된 현대차·LG엔솔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탑승한 전세기기가 이륙하고 있다.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사설

본격화되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 도내에서도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에서 진료를 받고, 약까지 배달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시스템이 남원에 구축된다. 화상 전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통해 경로당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 약까지 배달받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남원시는 올해 말까지 16개 거점 경로당에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496개 전체 경로당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해 온라인을 통한 운동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스마트 경로당은 관심이 높은 대한노인회 시범사업이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13억 원을 투입해 60곳에 스마트경로당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은 계

속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시범사업 경로당에도 새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문화 활동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다. 어르신들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건의하기도 한다. 특히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스마트 경로당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 △키오스크 활용교육 △건강체조 △노래교실 △클래식 음악 강의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키오스크를 통한 건강관리, 출석·활동기록, 지역정보 제공 등이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활 편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이 활성화 되어 노인 복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늘어나는 치매 환자

치매에 걸렸으니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이유는 모두, ‘치매’가 환자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병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치매는 크게 ‘가역성 치매’와 ‘비가역성 치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체 치매의 5~10%에 불과하지만 가역성 치매는 완치가 가능하다. 정상적인 뇌수두증, 뇌종양 및 만성 경막하 혈종, 갑상성 질환, 내분비질환, 결핍성 질환, 알코올 중독, 약물, 우울증과 관련된 치매를 들 수 있다. 반면 비가역성 치매는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대표적이다. 비가역성 치매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인데 그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20~30%의 뇌혈관성 치매가 뒤를 잇는다. 알츠

하이머성 치매의 가장 큰 증상은 기억력 장애다. 그로 인해 지능저하도 급격하게 일어나서 못 입기, 식사, 세면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언어도 불명확해지며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 점차적으로 정신이 쇠약해져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기억을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경증일 경우 가족을 식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면서 과거의 대화나 사건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증상만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환자들은 우울감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며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증세 호전 혹은 유지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